

**교회생활 안에서 교회생활을 위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고 그리스도를 삶**

(토요일 — 오전 1부 집회)

메시지 4

**인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영**

성경: 겔 36:26-27, 마 5:3, 8, 엡 3:16-17, 20-21, 계 1:10, 4:2, 17:3, 21:10

**I.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실 것이고 그들 안에 그분의 영을 두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겔 36:26-27.**

- A. 우리는 모두 우리의 마음과 영의 새로움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 고후 4:16, 롬 7:6, 비교 잠 4:23, 벧전 3:4.
- B.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 기관이고, 우리의 영은 받아들이는 기관이다. 우리가 타락한 상태나 뒤로 물러난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되고 우리의 영은 죽어 있게 된다 — 엡 2:1, 4:18.
- C.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거나 부흥시키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고기 같은 마음, 곧 그분을 향해 부드럽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하신다. 더 나아가 그분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 비교 고후 3:3, 골 2:13.
- D.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며, 우리의 새로워진 영을 사용함으로써 주님을 접촉하고 받아들이고 답을 수 있게 된다.

**II. 신약은 우리의 마음과 영에 대해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 마 3:2, 요 3:6.**

- A.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신약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였다 — 마 3:2.
  - 1. 헬리어에 따르면,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혹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생각이 마음을 이루는 주된 부분이기에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 2. 철저히 회개한 마음은 새 마음이 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 고후 3:16, 18.
- B. 부드러워진 마음은 변화된 마음, 곧 새 마음이다. 우리 믿는 이들은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많이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거듭해서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하신다 — 계 2:5, 16, 21-22, 3:3, 19.

**III.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넓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 A.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넓어야 한다 — 시 119:32.
  - 1. 우리는 새 언약의 참된 사역자들로서, 공급하는 생명, 곧 열매 맺는 생명에서 나온 친밀한 관심과 함께 넓어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 — 고후 7:2-3.
    - a. 넓어진 마음을 가진 사도들은 믿는 이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모든 믿는 이들을 포용할 수 있었고, 열린 입으로 모든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잘못 인도되어 처하게 된 실지 상태에 관해

-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다 — 고후 6:11.
- b. 우리가 잘못 인도되거나 빗나가게 된 믿는 이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열리고 넓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2. 솔로몬은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 지혜와 넓은 마음은 한 가지의 두 방면이다.
    - a. 비록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출입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뿐이지만(왕상 3:5-9, 대하 1:10), 하나님은 그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왕상 4:29).
    - b. 하나님께서 ‘모래를 두어 바다의 경계’(렘 5:22)로 삼으셨기 때문에 해안이 바다를 둘러싸고 있다. 이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바다보다 더 넓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B. 장로들에게 넓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 지방의 교회들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어리석음의 표현인 교만은 좁은 마음에서 나온다.
1. 교만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속성이다.
  2. 주님은 심지어 바울에 관해서도 그가 자신을 너무 높일 것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의 육체에 사탄에게서 온 가시를 두셨다 — 고후 12:7-9.
  3. 따라서 사도 바울은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교회의 감독이 될 수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눈이 멀어 마귀를 위해 준비된 심판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딤후전 3:6.
  4. 우리는 겸손이 온갖 종류의 과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 약 4:6.
  5. 교만은 우리를 가장 어리석게 만든다.
  6. 주님의 일에서 경쟁하는 것은 야심의 표시일 뿐 아니라 교만의 표시이다.
  7. 자신의 위신은 관심하면서 다른 이들의 존엄성은 무시하는 것은 간교한 교만의 표시이다.
  8. 자신의 역량과 성공과 온전함과 미덕을 언급하는 것은 교만의 경솔한 모습이다.
  9.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이며, 몸의 생활 안에 있는 합당하고 유기적인 질서를 무력하게 만든다 — 롬 12:3.
  10.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인성 안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교만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지에 대한 좋은 본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 요 13:3-5.
  11. 누가 더 큰지에 관해 논쟁하는 것은 교만의 추악한 모습이다 — 막 9:34.
  12. 크게 되기를 원하고 종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으뜸이 되기를 원하고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또한 교만의 표시이다 — 마 20:26-27.
  13. 우리의 목양 아래 있는 교회의 지체들을 주관하는 것은 교만의 강한 표시이다 — 벰전 5:3.
  14.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제시해 주었다 — 딤후전 1:16.
    - a.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신 것과 그 자신은 주님을 위해 믿는 이들의 노예라는 것을 전파했다 — 고후 4:5.
    - b. 바울은 누가 약해지면 자신도 약해지고, 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약한 사람들에게 자신도 약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 고후 11:29, 고전 9:22.
  15. 어쩌다가 잘못을 저지른 한 형제를 온유함(겸손의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로잡아 주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에서 우리 또한 지켜 준다 — 갈 6:1.

16.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며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모두 교만의 추악하고 비열한 표시이다 — 갈 5:26.

- C. 각 지방의 인도하는 이들이 그들의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다른 곳들을 방문해야 한다. 환경이 허락하여 해외로 여행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주님의 움직임에 더 많이 참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 — 겔 1:15-21.
- D. 다른 이들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여부는 우리의 마음이 넓은가에 달려 있다. 우리가 어느 형제와 논쟁한다면, 이것은 주로 우리의 마음이 좁기 때문이다 — 마 6:14-15.

**IV. 주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에게서 태어날 필요가 있음을 가르치셨다 — 요 3:6.**

- A.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의 영은 다시 난다.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생명에 더하여) 새 인격의 새 근원과 새 요소가 되는 신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 B. 우리는 새 마음을 갖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나 새 영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
- C.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의 영이 필요하다 — 막 12:30, 딤후 1:7.
- D.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훈련된 영을 가진 영적인 사람이어야 한다. 인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다스림받아야 한다. 강한 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인도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한 주된 요구 조건이다 — 딤후 4:7, 고전 2:15, 14:32, 요 4:24, 고후 2:13, 롬 1:9, 8:16, 고전 6:17.
- E. 우리는 영의 새로움 안에서 봉사하고(롬 7:6, 1:9), 우리의 믿음의 영을 훈련함으로써(고후 4:13) 우리의 영의 새로움을 유지해야 한다. 믿음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 안에 있다(롬 8:16, 고전 6:17). 우리의 생각 안에는 의심이 있다.

**V. 우리는 마음이 순수해야 하고(마 5:8)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한다(3절).**

- A.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며, 천국을 받기 위해 비워진 영이 필요하다.
- B. 마음이 순수한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단일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한다. 교회생활 안에서 봉사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를 갖지 말아야 한다.
- C.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하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집회에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 버릴 것이다(계 3:16-17, 20).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오, 주님, 당신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당신이 부족합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의 영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 드리며, 당신께서 제 영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시기를 간구합니다.”

**VI.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강하게 되어 우리의 거듭난 영에 이르러야 한다 — 엡 3:16-17.**

- A. 구원받은 사람이 강하게 되어 그의 영에 이르고 그의 마음이 주님께 점유될 때, 그는 깊은 속에서 교회생활을 갈망하게 되고 합당한 교회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해 내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 B. 교회를 아는 것은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적인 문제이다. 시온에 이르는 대로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의 길을 단지 외적으로가 아니라 내적으로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시 84:5.
- C. 우리가 그 영을 통해 강하게 되어 우리의 영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생활에 관하여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영광스러운 교회생활이 미국 전역과 온 세계에 확산되고 우세해질 것이다 — 엡 3:20-21.

**VII.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상을 보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 A. 이 책은 네 가지 주된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바로 교회들에 대한 이상(1-3장), 세상의 운명에 대한 이상(4-16장), 큰 바빌론에 대한 이상(17-20장),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이다(21-22장). 이 네 가지 이상을 보았을 때 요한은 그의 영 안에 있었다(1:10, 4:2, 17:3, 21:10). 우리 역시 이 책에 있는 이상들을 보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한다.
- B.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시기를 삼십 일 동안 기도한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과 큰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우주의 전체 상황에 대해 분명한 조망을 갖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될 것이다.

**VIII.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화된 영에 달려 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 의해 완전히 점유되고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철저히 적셔진다면, 하나님은 길을 얻으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교회를 위하여 합당한 마음과 영이 필요함**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함**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신 이들인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이었다. 그들은 빛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인 그들에게는 이미 마음과 영이 있었지만, 그들이 빛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영은 낡아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출발이 필요하다.

**회개하는 마음과 거듭난 영이 필요함**

신약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에 대해 말함으로써 시작한다. 침례자 요한은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마 3:2)라고 선포하면서 신약에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파했다. 헬라어에 의하면,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 혹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생각은 마음을 이루는 주된 부분이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이다. 우리의 체험이 이것을 확증한다. 신약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마음과 함께 시작되었다.

철저히 회개한 마음은 새 마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분은 외과 의사가 심장을 이식하듯이 우리의 옛 마음을 꺼내시고 새 마음을 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므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의 마음에 일어난다. “오, 하나님, 저는 매우 죄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당신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한 면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있을 때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겠지만, 그분께 회개한 후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바뀐 것을 발견한다. 우리는 전에 딱딱했던 마음이 회개한 후에 부드러워진 것을 발견한다.

나는 십 대였을 때 매우 강박했다. 나는 돌처럼 딱딱했다. 그 누구도 나를 바꾸거나 정복할 수 없었지만, 어느 날 나는 회개했다. 나는 복음 메시지를 들은 후에 길을 걸어가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나님, 저는 전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회개합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마음이 부드러워져 있었으므로 내 마음이 변한 것을 발견했다. 나의 어머니도 이러한 변화를 알아채시고, 그것을 보며 놀라워하셨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은 우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표시이다. 부드러워진 마음은 변화된 마음, 새 마음이다.

회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믿는 이들도 거둬들여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회개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이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씻는 것과 같아서, 한 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항상 회개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은 거둬들여 회개하라고 말씀하신다(2:5, 16, 21-22, 3:3, 19).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약이고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는 가장 좋은 길이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침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회개하라고 외치며 복음을 전한 후에, 이어서 주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요 3:6)을 가르치셨다.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일 뿐이다.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에 이어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합당하고 균형 잡힌 사람은 좋은 마음과 합당한 영을 가지고 있다. 좋은 마음은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부드러워진 마음이고, 합당한 영은 다시 태어난 영이다.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신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둬들여 하실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신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 새 마음이 되는 것은 기이한 일이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 새 영이 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사람인 우리에게서 마음과 영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위하도록 영을 갖고 있다. 마음은 알고 이해하게 하는 생각을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영이 필요하다. 각 사람에게서 이 두 기관—마음과 영—이 있지만, 우리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도 종종 스스로에게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않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우리의 영에서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합당한 마음과 합당한 영은 새 마음과 새 영이다. 우리는 새 마음을 갖기 위해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 새 영이 되기 위해 주 예수님 안으로 믿어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옛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 마음으로 대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옛 마음을 새 마음으로 변화시키신다. 같은 원칙으로, 그분은 우리의 옛 영을 가져가시고 새 영으로 대치하지 않으신다. 그보다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그 영이신 하

나눔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그분의 생명 요소를 우리의 영 안으로 가져오심으로 우리의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옛 영이 새 영이 된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이 있다. 이것이 우리를 합당한 사람들로 만든다.

###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함

주님은 산에서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마 5:8)라고 말씀하셨고,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3절)라고 말씀하셨다.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가난한 영을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외의 것들로 채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고, 천국을 받아들이기 위해 비워진 영이 필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는 용량을 더 갖기 위해 우리의 영을 비워야 한다.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졌고 영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되고 영 안에서 가난해져야 한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단일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고 복잡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단순해져야 한다. 우리가 교회생활 안에서 봉사를 하고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순해져서 하나님만을 관심한다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은 순수할 것이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목표도 갖지 않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한다. 우리가 내적으로 풍성하고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을 갖고 집회에 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 문을 닫아 버릴 것이다. 영 안에서 가난하려면, 우리는 “오, 주님, 당신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당신이 부족합니다. 당신께서 제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의 영이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 제 자신을 열어 드리며, 당신께서 제 영 안에서 더 많은 입지를 얻으시기를 간구합니다.”라고 기도해야 한다. 최근에 내가 메시지를 전한 후에 한 청년이 나에게 와서 많은 질문을 하며 도전했다. 나는 그가 겸손하지 않고 그의 영이 가득 채워져 있었으므로, 그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마음으로 회개하고 우리의 영이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순수하고 영 안에서 가난할 필요가 있다.

### 사랑하는 마음과 능력 있는 영이 필요함

마가복음 12장 30절은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우리의 마음은 사랑하는—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마음이 되어야 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랑이 있어야 하며, 맑아야 한다.

### 우리가 강하게 되어 거듭난 영에 이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심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셔서 속사람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거듭난 영이며, 하나님은 이곳에 자리를 잡으셨다. 우리는 강해져서 이 영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로 점유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점들은 우리에게 단지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자신이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르고 있는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그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께 점유되어 주님의 거처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합당한 교회생활을 추구하고, 합당한 교회생활을 분별하며,  
합당한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합당한 마음과 영을 가짐**

우리가 그 영에 의해 강해져서 우리의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심으로 우리를 소유하신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합당한 교회생활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관해 분명하지 않다. 그들은 어떤 교회가 올바른지 모른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생명 안에 머무른다면 교회에 대해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믿는 이들은 마음과 영이 올바르게 되도록 도움을 받자마자 교회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합당한 교회생활이 무엇인지를 쉽게 분별하게 된다.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강해져서 그의 영에 이르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때, 그의 깊은 속에는 교회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게 되고, 합당한 교회생활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적 인식이 있게 된다. 교회를 아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내적인 것이다.

우리는 외적인 방식으로는 교회를 분별할 수 없다. 그보다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맛보아야 한다. 어렸을 때 나는 특별한 잔치에 초대를 받은 적이 있었다. 나는 도시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식탁에 앉았을 때 설탕과 소금이 똑같이 보였기 때문에 설탕 대신 소금을 잘못 사용했다. 나는 음식을 맛보기 전까지는 왜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들이 웃고 있는지 몰랐다. 나의 시력은 좋았지만 소금과 설탕을 보기만 해서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입에 넣었을 때에는 쉽게 구별했다. 새로워지고 순수해진 마음과, 성령으로 강해져 새로워진 영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합당한 교회생활을 맛볼 때 빨리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맛보는 것은 단지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영을 필요로 한다. 새 신자는 어떤 그리스도인 단체를 방문할 때, 그의 제한된 지식으로는 많은 것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께 점유된 새로워진 생각과 그 영에 의해 강해진 새로워진 영을 가진 합당한 사람이라면, 그곳이 합당한 교회인지 아닌지를 자신의 내적 미각에 의해 빨리 알아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교회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필요하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지방 교회의 집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을 때, 교회에 대해 별 지식이 없었다. 우리의 외적인 인식으로는 집회가 상당히 이상하게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깊은 속에서 이것이 합당한 교회생활에 대한 주님의 회복이라는 것을 느꼈다. 아마 우리는 이러한 내적인 느낌을 설명할 수 없었고, 우리의 생각은 완강하게 저항했겠지만, 그 느낌은 참되고 지속적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과 영 안에 있는 감각에 의해 교회생활을 맛볼 때 교회생활을 분별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고  
교회 안에서 영광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합당한 마음과 영을 가짐**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강하게 되어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에 대해 말하고, 그 후에 20절과 21절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문맥에 의하면,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 영을 통해 강하게 되어 우리의 영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생활에 관하여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다. 그러므로 강해져서 속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는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미국에 이르렀고, 우리가 이 회복으로 인도된 것

로 인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우리는 강해져서 우리의 영에 이름으로써,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시도록 허락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길을 얻으시도록 해 드려야 한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몇 년 안에 영광스러운 교회생활이 미국 전역과 온 세계에 확산되고 우세해질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일이 아니며, 전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에 달린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전기는 강력하지만 전기가 작동하려면 전기를 전달하는 전선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강력하시다. 그분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해 주실 수 있지만, 그분께서 길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 점유된 우리의 새로워진 마음과 우리의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강해진 영이 필요하다.

내가 열아홉 살에 구원받은 때로부터, 주님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시고 거처를 정하시기 위해, 그리고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다루어 오셨다.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 협력해 드릴수록 나는 그분의 회복을 더 보았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안의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완전히 얻으신다면 곧 온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생활 안에 있는 청년들은 그들 자신을, 집회에 참석하여 메시지만 듣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우리는 주님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를 더 회복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최고도로 회복주소서. 주님, 사도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를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완전히 점유되기 원합니다.” 모든 청년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앞으로 큰 성취를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청년 형제자매들은 젊은 나이에 주님의 회복의 모든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말씀은 열려 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점유되고 우리의 영이 그분에 의해 강해진다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길을 가질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지방 교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와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다. 우리에게 이러한 주의가 집중되는 것은 이것이 주님의 회복이고 사탄의 어둠의 세력을 흔들기 때문이다. 종교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은 우리에게 대해 악한 소문을 퍼뜨린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그분의 움직임은 강력하다. 교회들 안의 청년들이 주님의 회복의 위임을 맡아야 한다. 이러한 위임을 받는 길은 “주님, 저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주님께서 계속 저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점령하시며 저를 강하게 하셔서 저의 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열어 드립니다. 저의 마음에서 모든 입지를 차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청년 형제자매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우리 가운데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서 그분께 영광이 있을 것이다.

###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상을 보기 위해 우리의 영 안에 있어야 함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네 가지 큰 이상—교회들(1-3장), 세상의 운명(4-16장), 큰 바빌론(17-20장), 새 예루살렘(21-22장)—으로 구성된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이상들을 볼 때마다 영 안에 있었다.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에서 요한은 “주님의 날에 내가 영 안에 있었으며, 내 뒤에서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일곱 교회...에게 보내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몸을 돌이켰을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라고 말한다. 영 안에 있는 것이 교회들을 보는 길이다.

세상의 운명에 관한 두 번째 큰 이상을 보았을 때도, 요한은 역시 영 안에 있었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4:2). 무엇이든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늘에 있는 신성한 보좌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



을 본 것은 고난당하는 사도에게 큰 격려와 위로였다. 그는 그의 영 안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받을 세상의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다음으로 요한은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려서 세 번째 큰 이상—변절한 교회인 바빌론—을 보았다(17:3). 그는 이것을 분명히 보았다. 최종적으로 그는 영 안에서 크고 높은 산으로 이끌려서 네 번째 이상이자 마지막 큰 이상인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21:10).

우리가 삼십 일 동안 매일 “주님, 저를 강하게 하셔서 저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의 거처를 저의 마음에 정하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내적인 눈이 열릴 것이다. 우리는 우주 안에서 전개되고 있는 큰 네 가지—교회들, 세상, 큰 바빌론, 새 예루살렘—를 분명히 볼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고, 큰 바빌론은 무너질 것이지만, 교회들은 영원히 있을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오늘날 청년들은 과학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결코 들어 본 적이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모른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시기를 삼십 일 동안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볼 것이다. 우리는 분명한 조망을 가질 것이고, 교회들과 세상과 큰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을 포함한 우주의 전체 상황에 관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다.

### 주님의 회복의 계속과 확산은 청년들이 합당한 마음과 영을 갖는 데에 달려 있음

나의 부담은 성경을 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이다. 청년들은 이러한 부담을 취해야 한다. 이제 그들이 주님의 회복을 돌보아야 할 차례이다. 주님의 회복 안의 사역은 기독교의 일반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듣는 이들에게 주님의 회복의 살아 있는 씨를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많은 청년들이 주님의 회복을 위해 그들의 생명을 드릴 것이라는 넘치는 확신이 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새로워지고 순수하게 된 마음과 새로워지고 강해진 영에 달려 있다.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그리스도께 점유되고 우리의 영이 그 영으로 철저히 적셔질 때, 하나님은 길을 가지실 것이고 회복은 우세해질 것이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회복은 가는 곳마다 우세해지고 있으며, 그 무엇도 회복을 소멸시킬 수 없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소유하시도록 그분께 허락해 드리며, 우리의 영 안에서 그 영으로 적셔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우리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인 한, 그 무엇도 우리를 중단할 수 없다. 우리는 땅에 묻혀서 억눌릴 때 번성할 기회를 얻는 밀알들과 같을 것이다. 반대자들이 우리를 억누를수록 우리는 더 자라고 번성할 것이다.

나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계심을 믿는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영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하시고 소유하시며,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하시며 적시고 계신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영에서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필요를 보고, 주님의 회복을 위한 위임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5-1976년, 2권, 교회를 위하여 합당한 마음과 영이 필요함, 509-522쪽)*